

영어와 한국어의 중복표현에 관한 화용론적 고찰

조 준 학

1. 머리말

이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중복표현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명하고 나아가 중복표현을 쓰는 이유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1절에서는 중복표현의 정의를 내린 다음,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복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2절에서는 영어의 중복표현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한국어의 중복표현을 고찰한다. 4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중복표현을 비교, 검토하면서 중복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표현이란 영어의 redundancy를 의미한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redundancy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¹ 다만 일종의 작문지침서라 할 수 있는 handbook의 저자들이 redundancy를 정의하면서 예를 든 정도이다. 그중에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a. Leggett, Mead, and Charvat(1951)은 “다른 단어의 뜻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는 단어들”(words which needlessly repeat the meaning of other words)이라고 하면서 seen by the eyes를 예로 들고 있다.
- b. Gorrell and Laird(1953)은 “과다한 단어들, 특히 이웃한 단어의 뜻을 되풀이하는 과다한 단어들”(excess words, especially those that double the meaning of neighboring words)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예로 return back을 들었다.
- c. Evans and Evans(1957)은 combine together를 예로 들면서

* 이 연구는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대우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얻어 이루어졌다. 연구를 도와준 이필환, 고광윤 연구보조원과 원고를 읽고 귀중한 논평을 해준 심재기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¹ 조준학(1993)은 영어의 redundancy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인 것 같다.

“말이나 글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the use of too many words to express an idea in speech and writing)이라고 정의하였다.

- d. Morris and Morris(1975)는 “의미에 보탬이 되지 않는 단어를 포함함으로써 결국 같은 뜻을 되풀이 하는 구”(a phrase which includes words unnecessary to the meaning and which, as a result, repeats itself)라고 하면서 new innovation을 예로 들고 있다.
- e. Johnson(1982)는 “중복표현은 같은 생각을 다른 말로 되풀이한다.”(A redundancy repeats the same idea in different words.)라고 정의하면서 variety of different choices를 예로 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의들은 한결같이 중복표현을 불필요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언어학자들이 아니라 모범적인 문장의 작법에 중점을 두는 작문지침서의 저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표현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자들은 어휘론의 테두리에서 반복복합어²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반면 중복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심재기(1982)가 중복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역저 ‘국어어휘론’에서 중복현상을 다루면서 단어의 중복뿐만 아니라 어구의 중복, 문절의 중복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는 어구의 중복으로 “이팔 청춘 젊은 것이”를, 문절의 중복으로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를 ‘춘향전’에서 인용하고 있다.

앞으로 실례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겠지만 어떤 표현이 중복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과 또 어떤 중복표현이 거부감을 주고 어떤 중복표현이 거부감을 주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것은 구어나 문어나에도 좌우되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조사결과³에 의하면 consensus of opinion에서 of opinion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91%이고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 9%여서 이 경우에는 판정하기가 쉽다. 그러나 I don't know whether or not he will come.에서 or not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44%인 데 반해서 불필요하다고 보

² 반복복합어란 영어의 reduplication을 의미한다.

³ 미국의 Harper & Row, Publishers에서는 *Harper Dictionary of Contemporary Usage* (1975)를 편찬하면서 136명의 저명한 문필가, 편집인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만들어 현대영어의 어법에 관하여 그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는 사람이 56%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큰 대어를 낚았다”라는 표현에서 ‘큰’은 좀 거부감을 주지만 “큰 대문이 있는 집”이라는 표현에서 ‘큰’은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영어의 예들은 참고문헌에 실린 사전이나 작문지침서에서 주로 수집하였으며, 한국어의 예들은 신문·잡지·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주로 수집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수집하였다.⁴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처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2. 영어의 중복표현⁵

2.1. 영어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순수한 영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예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는데 그 까닭은 아마도 화자나 청자가 다 잘 아는 단어들은 굳이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2) black in color, drain the cup dry, free for nothing, free gift, gather together, grind one's teeth together, large in size, lesser, the most unkindest, never ever, new beginner, a rasher of bacon, seen by the eyes, widow of the late Senator Joseph Jones

black에는 색깔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black in color는 중복표현이다. drain the cup dry에서 drain은 ‘make gradually dry’라는 뜻이므로 dry라는 단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free와 for nothing은 같은 뜻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free는 ‘거저 준다’는 뜻이므로 free gift는 중복표현이 된다. grind one's teeth together에서 grind에는 ‘together’의 뜻이 담겨 있으므로 together는 불필요한 것이다. large in size에서 large는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in size는 없어도 좋다. lesser는 소위 이중 비교급형으로서 little의 비교급 less에 다시 비교급 어미 -er을 첨가한 것이다. the most unkindest는 unkindest라는 최상급형에 다시 최상급형을 만드는 데 쓰이는 most를 덧붙인 소위 이중 최상급형이다. never는 not ever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never 다음에 ever를 쓸 필요가 없지만 never ever라는 표현은 흔히 눈에 띈다. beginner는 ‘초심자’란 뜻이므로 new beginner의 new는 불필요한 것

⁴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1991년 봄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의미론과 화용론을 수강한 학생들의 도움이 컸음을 밝히고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한다.

⁵ 영어의 중복표현은 조준학(1993)의 일부를 수정, 인용하였다.

이다. rasher는 ‘thin slice of bacon which is either broiled or fried’라는 어의에서 보듯이 bacon이란 뜻이 들어 있으므로 a rasher of bacon은 분명히 중복표현이지만 관용적으로 널리 쓰인다. seen by the eyes에서 by the eyes가 불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widow는 ‘a woman who has lost her husband by death and has not remarried’라는 어의에서 보듯이 ‘남편을 잃은 여인’을 뜻하므로 widow of the late Senator Joseph Jones에서 the late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예들은 모두 중복현상을 보이는 구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 a. She was too proud to care from whence I came.
 b. Where did he go to?
 c. Where are you staying at?
 d. It's raining outside.
 e. Let's us go to the movies tonight.
 f. It keeps happening again and again.
 g. He left after she had arrived.

(3a)에서 whence는 ‘from what place’라는 뜻이므로 그 앞에 from을 첨가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from whence를 즐겨 쓴다. (3b)의 where에는 ‘to what place’라는 뜻이 있으므로 go 뒤에 to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3c)의 where는 ‘in/at what place’라는 뜻이므로 staying 뒤에 at을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 (3d)의 경우 비가 오는 곳은 으레 집 밖이므로 outside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3e)에서 Let's는 Let us의 축약형이므로 Let's 다음의 us는 불필요하다. keeps happening은 어떤 일이 되풀이 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f)에서처럼 again and again을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 (3g)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다. 그러나 접속사 after는 접속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에 선행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after 다음에 had arrived 대신에 arrived를 써도 무방하다.

2.2. 영어와 외국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영어와 외국어의 단어⁶가 중복현상을 보이는 예는 허다하다. 그래서 편지 상 영어와 라틴어, 영어와 그리스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이 겹치는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⁶ 이 논문에서 말하는 ‘외국어의 단어’란 외국어에서 영어로 도입된 외래어를 의미한다.

2.2.1. 영어와 라틴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이번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 가운데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 가장 많은 데 그 이유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의 정확한 뜻을 화자가 모르거나 혹은 청자가 모를 것이라고 화자가 생각할 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중복표현을 쓰는 데 있는 것 같다. 다음 예들을 검토해 보자.

- (4) adequate enough, advance forward, and et cetra, angry mob, ascend up, assemble together, as usual as ever, audible to the ears, cancel out, collaborate together, commute to and from work, descend down, enact into law, enclosed herein/herewith, endorse on the back, end result, estimate at about, false lie, forcible rape, forward progress, hollow tube, (in)visible to the eyes, knots per hour, memories of the past, mural on the wall, new innovation, new record, now pending, an old adage, the only other alternative, a per diem allowance of 60 dollars a day, past experience, past history, plan ahead, real facts, refer back to, repair work, true facts

enough에는 ‘fully adequate or sufficient in quantity, number, etc.’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adequate enough는 중복표현이다. sufficient enough도 마찬가지로 중복표현이다. advance는 ‘bring or move forward in position’이란 뜻이므로 advance 다음의 forward는 불필요하다. et cetera는 ‘and so forth’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따라서 그 앞에 and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mob에는 ‘a large or disorderly crowd, esp. bent on riotous or destructive action’이란 뜻이 있으므로 angry mob은 중복표현인 셈이다. ascend는 ‘go or move up’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ascend up은 중복표현이다. assemble은 ‘bring together’란 뜻이므로 assemble 다음에 together를 붙일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join together에서도 together는 불필요하다. as usual과 as ever는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as usual as ever는 중복표현임이 분명하다. audible은 ‘capable of being heard’란 뜻이다. 그러므로 audible 다음에 to the ears는 불필요하다. cancel은 ‘call off’라는 뜻이므로 out을 첨가할 필요가 없는 데 cancel out이라는 표현을 흔히 볼 수 있다.

collaborate는 ‘work together’란 뜻으로 접두사 col- 속에 ‘together’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collaborate together는 중복표현이다. 마찬가지로 combine/cooperate together도 중복표현이다. commute에는 ‘왕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commute to and from work에서 and from은 불필요하

다. descend에는 ‘move or come down’이란 뜻이 있으므로 down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enact는 ‘make into law’라는 뜻이다. 따라서 enact into law에서 into law는 없어도 된다. enclose에는 ‘insert in the same envelope, package, etc.’라는 뜻이 있으므로 그 뒤에 herein/herewith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endorse는 ‘write on the back of’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 뒤에 on the back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end에는 ‘an outcome or result’라는 뜻이 있으므로 end result는 중복표현이다. estimate에는 ‘judge tentatively or approximately the value, worth, or significance of’라는 어의에서 보다시피 ‘about’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estimate at 다음에 about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lie는 ‘an untrue or false statement’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false lie는 중복표현이 된다.

rape는 ‘the crime of forcing somebody, esp. a woman, to have sexual intercourse against her/his will’이라는 뜻이므로 forcible rape는 일견 중복표현인 것 같다. 그러나 법률용어로서는 forcible rape가 statutory rape와 대조적으로 쓰인다. 즉, forcible rape는 법정승낙연령 이상의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고, statutory rape는 법정승낙연령 미만의 사람과의 성행위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 반드시 강간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progress에는 ‘a forward or onward movement’라는 뜻이 있으므로 그 앞에 forward라는 수식어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식축구에서는 forward progres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즉, 공을 가진 선수가 앞으로 나아가다 태클을 당해서 뒤로 밀려났을 때 forward progress가 인정되면 밀려난 지점이 아니라 태클을 당한 지점에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된다. tube는 ‘a hollow elongate cylinder’라는 어의에서 보다시피 ‘hollow’라는 뜻을 내포한다. 따라서 hollow tube는 중복표현이다. invisible은 ‘눈에 보이지 않는’이란 뜻이므로 그 뒤에 to the eyes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knot는 ‘a speed of one nautical mile per hour’라는 어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당 1해리를 갈 수 있는 속도’의 단위이다. 그러므로 knots 다음에 per hour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memory는 으레 ‘과거에 대한 기억’을 뜻하므로 굳이 of the past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mural은 ‘a large picture painted directly on a wall or ceiling’이라는 어의에서 보다시피 on the wall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mural on the wall은 중복표현이다.

innovation은 ‘something new or different introduced’라는 뜻이므로 new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된다. record에는 ‘an achievement that surpasses previous accomplishment’라는 뜻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previous records는 괜찮지만 new records는 중복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new world record나 new Olympic record나 하는 표현을 흔히 볼 수 있다. pending이 ‘not yet decided or dealt with’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시제가 현재이면 now

를 쓸 필요가 없다. 즉, The matter is now pending이라는 문장에서 now는 불필요하다. adage는 ‘a traditional saying expressing a common experience or observation’이라는 뜻이므로 old라는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alternative는 ‘one of two possibilities’를 의미한다. 따라서 the only other alternative는 the alternative의 중복표현인 셈이다. per diem은 ‘a daily allowance, usually for living expenses’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a per diem allowance of 60 dollars a day라는 말은 a per diem of 60 dollars의 중복표현이 된다. 경험이나 역사는 의당 과거와 관계되므로 past experience와 past history에서 past는 없어도 된다. plan에는 ‘a scheme or method of acting, proceeding, etc., developed in advance’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ahead라는 부사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fact는 ‘something known to be true’라는 뜻이다. 따라서 굳이 real facts나 true facts라고 할 이유가 없다. refer에서 접두사 re-는 ‘back’이라는 뜻이므로 refer back to는 엄밀한 의미에서 중복표현이다. remand back to, retreat back to, revert back to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repair에는 ‘the act, process or work of repairing’이라는 어의에서 알 수 있듯이 ‘work’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repair work는 중복표현이 된다.

영어와 라틴어 단어 사이의 중복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 (5) a. I may possibly be able to go.
- b. I want your immediate attention right away.
- c. It is insisted that one must say “Slice the bread thinly”.
- d. The reason why I’m late is because I was caught in a traffic jam.

(5a)에서 범조동사 may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역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장부사 possibly가 첨가되었으니 이것은 분명히 중복표현이다. (5b)에서는 immediate와 right away가 의미상 중복되므로 right away를 빼는 것이 좋다. (5c)에서 insisted라는 술어는 보문절에 가정법이 쓰일 것을 요구하므로 굳이 must를 보문절에 쓸 필요가 없다. (5d)에서는 reason 다음에 why가 불필요하며 because는 잘못 쓰였다. 따라서 이 문장은 The reason I’m late is that I was caught in a traffic jam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2.2.2. 영어와 그리스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영어의 어휘 속에는 라틴어 외에도 유럽의 여러 언어는 물론 세계 여러 나

라의 언어에서 도입된 단어가 많다. 그러한 외래어와 영어단어가 중복되는 예를 수집해 보았으나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다음에 그 예들을 들어 본다.

- (6) attached hereto/together, cynosure of all eyes, Grand Prix prize, home economics, massively large, my own autobiography, pizza pie, Rio Grande River, return back, the Sahara Desert, Sierra Nevada Mountains, slow drawl, spell out in detail, strangle to death, tiny little detail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attach에는 ‘join one to the other’라는 뜻이 있으므로 굳이 hereto/together를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어에서 온 cynosure는 ‘the center of attention’이라는 뜻이므로 cynosure of all eyes에서 of all eyes는 불필요하다. prix는 ‘prize’라는 뜻의 프랑스어이다. 따라서 Grand Prix prize는 문자 그대로는 grand prize prize가 되는 셈이다. economics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oikos + nemein이다. oikos는 ‘house’를 nemein은 ‘to manage’를 의미하므로 economics의 원래의 뜻은 ‘household management’로서 home economics와 거의 같은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home economics는 중복표현이지만 오늘날엔 home economics가 특수한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는 중복표현이 아니다. 프랑스어에서 온 massive에는 ‘large in scale, amount or degree’라는 뜻이 있으므로 massively large는 중복표현이다. 그냥 massive라고 하든지 very large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utobiography는 ‘the biography of a person by him-/herself’라는 뜻이다. 따라서 my own autobiography에서 own은 불필요하다. pizza는 영어의 pie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이다. 따라서 pizza pie는 문자 그대로 pie pie가 되어 중복표현처럼 보인다. 그러나 pie에는 그 재료에 따라 apple pie, pecan pie, rhubarb pie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감안할 때 pizza pie도 pie의 일종으로 본다면 pizza pie를 꼭 중복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Rio Grande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는 강의 이름이다. 그런데 rio는 스페인어로서 영어의 river에 해당한다. 따라서 Rio Grande는 영어로 grand river가 되며 Rio Grande River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grand river river가 되는 셈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Sierra Nevada Mountains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동부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달리는 산맥의 이름이다. 그런데 sierra란 영어의 ‘a mountain range’에 해당하는 스페인어이므로 Sierra Nevada Mountains는 문자 그대로는 Nevada mountains mountains가 되는 셈이다. sahara는 아랍어로 ‘사막’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Sahara Desert는 desert desert인 셈이다. drawl은 ‘say or speak in a slow

manner'라는 의미의 네덜란드어에서 온 단어이다. 그러므로 slow drawl에서 slow는 불필요한 것이다. spell out에는 'explain clearly and in detail'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spell out in detail은 중복표현이다. 그냥 spell out이라고 하든지 detail이라고 하면 족하다. 참고로 detail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명사로서의 detail에는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tiny little detail에서 수식어는 둘 다 없어도 된다. strangle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strangalan으로서 'kill by choking or suffocation'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strangle to death에서 to death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필요하다.

2.3. 외국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외국어 가운데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 가장 많다고 보고 라틴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나 프랑스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3.1. 라틴어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이 부류에 속하는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7) advance planning, close proximity, consensus of opinion, contributing factor, deliberate falsehood, final completion, joint partnership, plans for the future, present incumbent, subject matter, unauthorized trespassing, as a usual rule, variety of different choices, vitally essential

an advance payment(선불)에서 보듯이 advance에는 '사전의'란 뜻이 있다. 그런데 plan도 'a scheme or method of acting, proceeding, etc. developed in advance'라는 뜻이므로 advance planning이라는 표현에서 advance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proximity는 'nearness in place, time, relation, etc.'라는 뜻으로 이미 'close'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close proximity는 중복표현이다. consensus에는 'collective judgment or belief, solidarity of opinion, general agreement or concord'라는 뜻이 있으므로 consensus 다음의 of opinion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general consensus of opinion은 더 심한 중복표현인 셈이다. 중세영어 시기에 라틴어에서 도입된 factor에는 'one of the elements contributing to a particular result or situation'이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factor를 수식하는 contributing은 없어도 좋은 것임을 알 수 있다. deliberate에는 'studied or intentional'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모든 거짓말은 의도적이라 할 수 있

으므로 deliberate falsehood는 분명히 중복표현이다. final은 ‘end’라는 뜻의 라틴어 finalis에서 중세영어에 들어온 단어이다. 그런데 complete에도 ‘finished, ended, concluded’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final completion은 의미의 중복임을 알 수 있다.

partnership에는 ‘joint interest’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joint partnership은 중복표현이 된다. plan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a scheme or method of acting, proceeding, etc. developed in advance’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plan for the future는 중복표현이다. 그러나 plan이 ‘a specific project or definite goal’이라는 뜻일 때는 plan for the future는 중복표현이 아니다. present는 중세영어 시기에 라틴어의 praesent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the incumbent president에서 보다시피 incumbent에는 ‘present’의 의미가 들어 있다. 따라서 present incumbent는 중복표현이 된다. subject는 라틴어의 subjectus가 중세영어로 들어온 것으로 ‘that which forms a basic matter of thought, discussion, investigation, etc.’라는 뜻이다. 따라서 subject matter는 중복표현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subject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을 subject matter라고 길게 말하는 것을 Watergate language라고 한다. trespass는 ‘pass unlawfully within the boundaries of private land’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trespassing은 unauthorized이지 authorized일 수 없다. usual과 rule은 라틴어의 usualis와 regula가 중세영어로 들어온 것이다. rule에는 ‘the customary or normal circumstance, occurrence, practice, quality, etc.’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customary’라는 뜻이 usual의 뜻과 중복된다. 따라서 그냥 as a rule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ariety에는 ‘a number of different things’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variety of different things에서 different는 불필요한 것이다. vital에는 ‘essential’이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그냥 vital이라고 하든지 essential이라고 하면 족하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구에서 라틴어 단어가 중복되는 예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의 예들은 하나의 문장에서 라틴어 단어가 중복되는 것을 보여준다.

- (8) a. Expedient processing is required/desired promptly.
- b. The new procedure will begin to be initiated soon.

(8a)에서는 expedient와 promptly의 뜻이 중복되었으며 (8b)에서는 begin과 initiated의 뜻이 중복되었다. 이 문장들에서 중복된 요소들을 제거하면 (9)와 같은 간결한 문장이 될 것이다.

- (9) a. Expedient processing is required/desired.
- b. The new procedure will begin soon.

2.3.2. 라틴어와 그리스어나 프랑스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이 부류에 속하는 예들은 그리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 (10) antidote against poison, contractual agreement, diametrically opposite, fiscal financial year, mental telepathy, normal routine procedure, secret tryst

antidote는 그리스어의 antidoton에서 유래한 것으로 ‘a medicine or other remedy for countering the effects of poison, disease, etc.’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antidote against poison에서 against poison은 없어도 된다. 참고로 poison은 라틴어의 potionem이 중세영어로 들어온 것이다. contract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for the doing or not doing something specified’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contractual agreement는 contract의 중복표현이다. 참고로 agreement는 고대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diametrically는 ‘in direct opposition’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diametrically opposite에서 opposite는 불필요한 것으로 그냥 diametrical이라고 하면 좋다. 참고로 opposite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다.

라틴어의 fiscalis에서 유래한 fiscal은 ‘of or pertaining to financial matters in general’이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fiscal financial year에서 financial은 불필요한 것이다. mental telepathy는 흔히 눈에 띄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리스어에서 온 telepathy는 ‘communication between minds by some means other than sensory perception’이라는 뜻이므로 mental이라는 수식어가 필요치 않다. 프랑스어의 route에서 유래한 routine은 ‘a customary or regular course of procedure’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라틴어에서 유래한 normal이나 고대프랑스어에서 유래한 procedure는 routine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그냥 normal procedure라고 하든지 routine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secret tryst에 관해서 알아보자. 고대프랑스어에서 유래한 tryst는 ‘an appointment to meet at a certain time and place, esp. one made secretly by lovers’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tryst를 수식하는 secret는 불필요한 것이다.

3. 한국어의 중복표현

3. 1. 순수한 한국어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영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한국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다음에 그 예들을 들어본다.

- (11) a.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진보주의자
 b. 영이와 그리고 순이
 c. 밥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잤다.
 d. 영이나 또는 순이
 e. 그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정직하다.
 f. 그녀는 이미 벌써 떠났다.
 g.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 이 자리에 하일성 야구해설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i.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 일이 점점 복잡하게 되어진다.
 k. 김재박 선수의 컨디션이 좋게 보아/보여집니다.

(11a)에서 ‘그들이 말하는’과 ‘이른바’는 중복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진보주의자’라고 하거나 ‘그들의 이른바 진보주의자’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11b)에서는 ‘와’와 ‘그리고’가 중복되어 있다. (11c)에는 접속어미 ‘고’가 있으므로 ‘그리고’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11d)에서 접속어미 ‘나’에는 ‘또는’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또는’을 첨가하면 중복이 된다. 마찬가지로 (11e)에서 접속어미 ‘만’에는 ‘그러나’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러나’가 불필요하다. (11f)에서는 ‘이미’와 ‘벌써’가 같은 뜻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족하다. (11g)에서는 ‘남은 시간’과 ‘남지 않았습니다’에서 ‘남다’의 뜻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항감을 준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든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11h)에는 ‘자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서 부자연스럽다. ‘이 자리에 하일성 야구해설위원이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든지 ‘여기에 하일성 야구해설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11i)는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타결되었습니다’라고 하든지 ‘그 문제는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요즘 ‘되다’를 ‘되어지다’라고 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는데 (11j)는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11j)는 ‘일이 점점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일이 점점 복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차선이다. ‘보아/보여지다’도 근래에 흔히 접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보

이다'가 이미 피동형인데 거기다 또 피동어미 '지'를 첨가한 중복형이다. (11k)는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이것은 '김재박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3.2. 순수한 한국어와 외국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3.2.1. 한국어와 한자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영어와 라틴어 단어의 중복보다도 더 많은 예를 순수한 한국어와 한자어의 중복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자어가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편의상 한국어가 한자어 앞에서 한자어를 수식하는 형태와 한국어가 한자어 뒤에서 한자어의 뜻을 되풀이하는 형태로 구분하기로 한다. 먼저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2) 가장 좋은 최고의 품질, 가장 최선/최신/최근/최고의 방법, 그림으로 도해하다, 나머지 여타문제, 나쁜 악영향/악송구/악처/악법/악동/악질, 너무 과다/과격/과신하다/, 높은 고공/고도/고가/고음, 다시 재개/재발/재결합/재회/재출발하다, 다 함께 동참하다, 더러운 오물/오명/오점/오염지대, 또한 역시, 똑바로 직시하다, 둘로 양분되다, 뒤로 후진하다,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말씀이 어눌하시다, 먼저 선취득점/선제공격/선수/선공하다, 목숨으로 사수하다,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 못된 악처/악우, 물에 침수되다, 미리 예견/예상/예측/예약/예감/예비/예매/예납/예방/예보/예습/예행하다, 방금 전에, 빠른 속구/속도/속력/속담, 배에 선적하다, 빛을 깨끗이 청산하다, 새로 신설/신축/신장/신입한, 새로운 신곡/신인/신기술/신기록/신작/신제품/신상품/신문/신생아/신조어/신천지/신예/신출내기/신홍세력, 서로 상처하다, 서로 호각을 이루다,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자, (시위도중) 숨진 고 김귀순양, 스스로 자인/자칭/자각/자결/자제/자신/자조/자해/자상/자책/자성하다, 아까 전에, 아름다운 미모/미담/미문/미덕/미풍/미성/미녀/미회/미태/미사여구, 아직 시기상조다, 아픈 통증, 안전하게 안착하다, 앞 못 보는 맹인, 어려운 난국/난관/난제/난문, 얻은 소득, 여러 가지 각종 보험/다양한 선택,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다, 요번 차제에, 이름 있는 유명 메이커, 이미 기정 사실화된 썬이다. 자리에 착석하다, 잘못 오해/오인/오산/착각하다, 전해진 보도, 조용히 침묵하다, 좋아하는 기호식품, 좋은 길몽/희소식, 좋은 호착/호기(회)/호수비/호수/호경기/호평/호의/호인/호감/호시

절, 지나치게 과음/과식/과찬하다, 지나치게 과격하다, 집에서 가출하다, 처음 시작하다, 크게 대별하다, 큰 대어/대마/대가/대문, 할 수 있는 가능성,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해야 할 필요성

위의 예 가운데 ‘나쁜 악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악영향’의 ‘악’은 ‘악할 악’자이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 ‘나쁜’을 첨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미루어 ‘악’자로 시작되는 모든 명사구 앞에 ‘나쁜’을 첨가하여 중복표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위에 든 예 외에도 ‘나쁜 악몽/악행/악역’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재개하다’, ‘먼저 선취득점하다’, ‘미리 예견하다’, ‘새로운 신곡’, ‘스스로 자인하다’, ‘아름다운 미모’, ‘어려운 난국’, ‘좋은 호착’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재수술하다’, ‘먼저 선점하다’, ‘미리 예고하다’, ‘새로운 신혼가정’, ‘스스로 자위하다’, ‘아름다운 미소년’, ‘어려운 난경’, ‘좋은 호감정’ 등은 있을 수 있는 중복표현들이다.

위의 예 중에서 ‘새로운 신문’과 ‘큰 대문’은 거의, 아니 전혀 저항감을 주지 않는 데 반하여 ‘잘못 오해하다’와 ‘잘못 착각하다’ 등은 상당한 저항감을 준다. ‘신문’과 ‘대문’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자연스럽게 이들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오해하다’는 ‘잘못 이해하다’와 같은 뜻이므로 ‘잘못 오해하다’는 자칫 ‘잘 이해하다’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가능성’은 ‘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 앞에 ‘할 수 있는’을 첨가하면 중복이 된다. 그냥 ‘할 가능성’이 자연스럽다. ‘필요한 일’은 ‘해야 할 일’과 통한다. 따라서 ‘필요성’ 앞에 ‘해야 할’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하면 중복표현이 된다. 그냥 ‘할 필요성’이라고 하면 족하다.

이제는 한자어가 먼저 오고 그 뒤에 한국어가 따르는 예를 살펴보자.

- (13) 가능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다, 과반수가 넘다, (이러한) 관점/시점/시각에서 볼 때, 구색을 갖추다, 금발 머리, 급소 자리, (불조심) 기간 동안, 기존해 있는, 노랑색 빛깔, 단상 위, 대합 조개, 독수공방을 지키다, 명문대가 집안, 부상을/피해를 입다, 산재해 있는, 산행을 가다, (골고루) 섭취해서 먹다, 소위 말하는 지식인, 소위 말해서 엉터리이다, 실감나게 느끼다, 십대 나이, 안타를 치다/때리다, 야밤, 여분이 남다, 우선 먼저, 유명이 있는, 일견 보기에는, (내) 입장에 서서, 자조적인 웃음, 전류가 흐르다, 족발/발족, (군대를) 주둔시켜 두다, 주목을 돌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평소 때, 함성 소리, 허송세월을 보내다, (좋은) 흔치 자리, 호평이 좋다, 확실시된다고 본다

‘가능할 수 있다’는 앞에서 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중복표현이 되므로 그냥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다. ‘구색’은 ‘여러 가지 물건을 골고루 갖추’이라는 뜻이므로 ‘갖추다’를 첨가하면 중복이 된다. 자연스런 표현은 ‘구색이 맞다’이다. ‘기존’은 ‘이미 존재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해 있는’이란 말은 어색한 중복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산재해 있는’도 중복표현이 된다. ‘야밤’이란 말을 가끔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야반’을 잘못 알고 쓰는 것 같다. 어쨌든 ‘야밤’이라는 표현은 중복이다. ‘족’은 문자 그대로 모든 짐승의 발을 가리킨다. 그러나 ‘족발’이라고 하면 ‘각편 돼지의 발목’이라는 뜻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족발’은 형태적으로는 중복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중복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족발’이라 하지 않고 ‘발족’이라고 한다는 사실이 재미있다.⁷ ‘호평이 좋다’는 앞에서 든 ‘좋은 호평’과 마찬가지로 중복이다. ‘확실시된다고 본다’는 ‘고 본다’를 빼면 자연스런 표현이 된다.

3.2.2. 한국어와 영어/일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이러한 예는 그리 많이 수집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예들이 있다.

- (14) 높은 하이 볼, 마지막 파이날 세트, 왼쪽 레프트 필더, 진 바지, 로프 줄, 치킨 통닭 집, 히트치다, 모찌 떡, 몸빼 바지, 사시 순갈

‘높은 하이 볼’에서는 한국어인 ‘높은’이 영어인 ‘하이’를 풀이하는 중복현상을 보인다. ‘진 바지’와 ‘로프 줄’에서는 영어인 ‘진’과 ‘로프’를 한국어인 ‘바지’와 ‘줄’이 각각 부연하는 중복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진 바지’의 경우 우리말의 ‘바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데 반하여 ‘진’은 ‘면직으로 된 청바지’란 특수한 뜻으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 바지’는 완전한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히트치다’에서 ‘히트’는 ‘안타’라는 뜻으로 이미 ‘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히트치다’는 ‘안타를 치다’와 마찬가지로 중복표현이 된다. ‘히트치다’를 ‘히트매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볼 수 있다. ‘모찌’는 일본어로 ‘떡’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모찌 떡’은 일어와 한국어의 중복표현이다. 마찬가지로 ‘몸빼 바지’와 ‘사시 순갈’도 일어와 한국어의 중복표현이다. 그러나 ‘몸빼 바지’의 경우 ‘몸빼’는 2차대전시에 일본 여성이 입던 특수한 바지를 의미하므로 ‘몸빼 바지’는 전적으로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3.3. 외국어의 단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외국어의 단어들끼리 중복되는 표현은 편의상 한자어와 한자어의 중복표

⁷ ‘발족’이라는 예는 김현희의 ‘이제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에서 따온 것이다.

현과 한자어와 영어/일본어의 중복표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3.1. 한자어와 한자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한자어끼리 중복되는 표현에는 (15)의 예들과 같이 구를 이루는 것과 (16)의 예들과 같이 문장을 이루는 것이 있다. 먼저 구를 이루는 중복표현을 살펴보자.

(15) 감방에 수감하다, 기금을 모금하다, 사정거리, 승전보 소식, 이 열차에 승차하신 승객 여러분, 지금 현재, 차를 주차시키다, 참가하신 참가자 전원, 패인의 원인

‘사정거리’는 ‘사정’이나 ‘사거리’의 중복표현이다. ‘승전보 소식’에서 ‘소식’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 열차에 승차하신 승객 여러분’은 ‘이 열차에 계시는 승객 여러분’이라고 하든지 그냥 ‘승객 여러분’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참가하신 참가자 전원’은 그냥 ‘참가자 전원’이라고 하거나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패인의 원인’이라는 표현은 스포츠 중계를 듣다보면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준다. 그냥 ‘패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패배의 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중복표현을 보이는 문장들이다.

- (16) a. 양팀 득점없이 영대영입니다.
 b. 투표율은 불과 60%에 불과합니다.
 c. 그런 사실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d. 내가 의미하는 바보라는 의미는 그제 아닙니다.
 e. 다음 타자는 일번타자 김재박 타자입니다.

(16a)에서는 ‘득점없이’와 ‘영대영’이 의미상 중복이므로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양팀 영대영입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16b)에서는 ‘불과’와 ‘불과합니다’가 중복된다. 따라서 ‘불과’를 빼고 ‘투표율은 60%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든지 ‘투표율은 불과 60%입니다’라고 하면 충분하다. (16e)에서는 ‘타자’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다. ‘다음 타자는 일번타자 김재박 유격수입니다’라고 하든지 ‘다음은 일번타자 김재박 선수입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3.3.2. 한자어와 영어/일본어가 되풀이되는 경우

한자어와 영어나 일본어가 중복되는 표현은 그리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예들을 볼 수 있다.

(17) 깡통, 깡패, 골라인 선상, 그린벨트 제한지역, 미스 자넷트 양, 스

파이크 공격,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캠페인, 엽가 바겐세일, 우측 사이드, 지프차, 텃치라인 선상, 테니스 코트장, 파올라인 선상, 폴장, 페이지 55페이지, 전구다마

‘깡통’은 영어의 can(깡통)과 한자어인 ‘통’이 결합된 중복표현이다. ‘깡패’에서 ‘깡’은 영어의 gang으로 ‘패’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골라인 선상’에서는 ‘라인’과 ‘선’이 중복을 이룬다. ‘그린벨트’에는 ‘제한지역’이란 뜻이 담겨 있으므로 ‘그린벨트 제한지역’은 중복표현이다. ‘미스 자넷 양’에서는 ‘미스’와 ‘양’이 중복을 이룬다. ‘스파이크’에는 ‘공격’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스파이크 공격’은 중복이다.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캠페인’에서는 ‘운동’과 ‘캠페인’이 중복되어 있다. ‘바겐세일’은 ‘엽가판매’라는 뜻이므로 ‘엽가 바겐세일’은 중복표현이다. ‘지프’는 차의 일종이다. 따라서 ‘지프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복표현이다. ‘페이지 55 페이지’는 요즘 학생들한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이것은 영어와 영어의 중복표현이라 이 자리에 합당치 않으나 이와 같은 예가 더 없어서 부득이 여기에 포함시켰다. ‘전구’에는 일본어인 ‘다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전구다마’는 중복표현이다.

4. 영어와 한국어의 중복표현 비교

지금까지 2절에서 영어의 중복표현을 살펴보고 3절에서 한국어의 중복표현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검해보고 그러한 중복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구명해 볼 차례이다. 먼저 양국어의 중복표현에 나타난 공통점을 살펴보자.

첫째, 순수한 영어단어끼리의 중복표현과 순수한 한국어단어끼리의 중복표현은 비교적 많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순수한 자국어는 화자나 청자에게 친숙하므로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의사전달에 지장이 없다는 의식때문인 것 같다. 둘째, 영어의 경우는 영어와 라틴어의 결합에서 오는 중복표현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어의 경우는 한국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 오는 중복표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영어와 한국어에서 라틴어와 한자어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라틴어나 한자어의 뜻을 확실히 모르는 화자가 자기도 모르게 중복표현을 쓰거나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그 뜻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식적으로 중복표현을 쓰는 데에 기인하는 것 같다.

두 언어의 중복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은 영어의 경우 라틴어 이외에도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아랍어 등

여러 나라 언어와의 중복현상을 보이는 데 반하여 한국어의 경우는 한자어 외의 외국어와의 중복현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가 여러나라 언어와 광범위한 접촉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데 반해서 한국어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근래에 한국어와 영어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한국어와 영어의 중복현상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중복현상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중복표현을 쓰는 이유를 정리해보자. 말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되풀이하는 중복표현은 이 경제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1절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중복표현은 그저 불필요하기만 한 것인가. 영어의 a per diem allowance of 60 dollars a day나 한국어의 ‘다음 타자는 일번타자 김재박 타자입니다’와 같이 중복이 심해서 저항감을 주는 예도 있고, ‘폐인의 원인’이나 ‘잘못 오해하다’와 같이 중복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 표현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화자가 자기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재확인하려는 심리에서 중복표현을 쓰는 것 같다. 예를 들면 Geoffery Leech가 그의 저서 *Semantics, Second Edition*(1981: 193)에서 refer back to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refer의 어원을 몰라서라기보다 refer to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어느 방송프로에서 사회자가 ‘그 총장님은 워낙 말씀이 어눌하셔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아마도 ‘어눌’이라는 말을 시청자가 잘 모를까 봐 노파심에서 쓴 것으로 생각된다. 중복표현이 자국어와 외국어의 결합에서 더 빈번히 목격되며 또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어쨌든 화자가 말의 경제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중복표현을 마다않고 쓰는 것을 보면 중복표현은 일종의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조준학(1993) ‘영어의 중복표현 소고,’ 영어영문학 39-2.
 Costello, R. B. et al. (eds.) (1991)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New York: Random House.
 Engineer, S. et al. (eds.) (1991) *Longm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ew Edition, London: Longman.
 Fowler, H. W. (1965) *A Dictionary of Modern English Usage*, Second

- Edition,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rrell, R. M. and C. Laird (1953) *Modern English Handbook*,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Hanks, P. et al. (eds.) (1990) *The Collins Concise Dictionary Plus*, London and Glasgow: Collins.
- Johnson, E. D. (1982) *The Handbook of Good English*, New York: Facts on File Publications.
- Legget, G. C., D. Mead and W. Charvat (1951) *Handbook for Writers*, New York: Prentice-Hall, Inc.
- Morris, W. and M. Morris (1975) *Harper Dictionary of Contemporary Us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Poe, R. W. (1983) *The McGraw-Hill Handbook of Business Letter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Procter, P. et al. (eds.) (1978)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Sinclair, P. et al. (eds.) (1987)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London and Glasgow: Collins.
- Summers, D. et al. (eds.) (1992)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don: Longman.

ABSTRACT

A Pragmatic Approach to Redundancy in English and Korean

Choon-Hak Cho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redundancy by comparing various examples of redundant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For this purpose a corpus of redundant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was collected from written and spoken materials and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types: those involving native words only, those involving native words and foreign words, and those involving foreign words only. A careful analysis of the data has revealed an interesting fact that in the case of English, redundant expressions involving pure English and Latinate

words are most numerous and in the case of Korean, redundant expressions involving pure Korean and Sino-Korean words are by far the most numerous. This observation leads to a claim that redundancy is motivated by the speaker's psychology to ensure that his message is conveyed properly. This claim is further supported by the fact that redundancy is more frequently encountered in informal spoken language than in formal written language. Viewed as such, redundancy seems to be a necessary evil.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